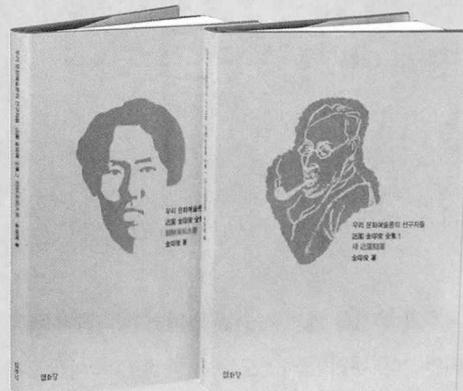


## ‘문사철’ 아우른 한 탁월한 예술가의 전모

《근원 김용준 전집(전5권)》 1차분 2권 출간

열화당에서 펴낸 《새 근원수필》 《조선미술대요》는 수려한 문체와 탁월한 심미안으로 조선미학의 근원을 탐구해온 근원 김용준의 문학과 미술사학의 진경을 확인할 수 있는 책들이다. 당대의 풍속과 한 지식인의 섬세한 내면을 물 흐르듯 써간 《새 근원수필》이 수필문학의 명편이라면 《조선미술대요》는 조선미술사를 관류하는 미학을 심미적으로 탐구한 미술사서술의 한 절정이다.



열화당/A5신/288면 내외/각 15,000원

열화당에서 전5권으로 기획한 《근원 김용준 전집》 가운데 《새 근원수필》 《조선미술대요》 두권이 먼저 나왔다. 근원 김용준(1904~1967)은 20세기 한국화단에 우뚝 솟은 동양화가이자 미술평론가, 한국미술사학자로 문사철(文史哲)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근원은 서울대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하다 한국전쟁 직후 월북, 평양미술대학 교수와 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약했다. 1957년 소련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수목채색화 〈춤〉을 출품해 금메달을 수상했다. 《근원수필》(1948), 《조선미술대요》(1949),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1958) 등의 저서로 문학·비평·역사에서 일가를 이루기도 했다.

### 보편적 감동의 울림 담긴 명수필

《새 근원수필》은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근원수필》의 완결판으로, 첫 수필인 〈서울사람 시골사람〉부터 월북 전에 발표한 〈십삼 급 기인 산필〉까지 23편을 더했다. 격조 높은 지성과 담백한 감성이 어우러진 이 책은 한국 수필문학의 명편으로 꼽힌다.

‘새 근원수필’이란 제목대로 이 책은 한글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편집했다. 원문을 존중하되 외국인명과 지명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바꾸고 각 페이지마다 낯선 표현에 대해 사전식 풀이를 달았다. 근원의 그림과 삽화, 참고사진과 작품을 배치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근원은 〈발(跋)〉에서 수필을 쓰게 된 내력을 “마음속에 부글부글 피고만 있는 울분을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어... 공연히 붓대에 맡겨 한두장씩 끄적거리다 보니 수필이란 것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5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근원의 글에는 보편적 감동의 울림이 담겨 있다. 매화 핀 것을 구경하러 간다는 말에 “자네도 꽤 한가로운 사람일세”라고 조소하는 분주한 세상에 대해 ‘냉회 같이 식어버린 우리네 마음’을 한탄하는 대목(〈매화〉)에서는 속도에 대한 변함없는 강박증을 읽을 수 있고, 동족상쟁하는 계의 생태를 빌어 당시의 세태를 비꼬는 글(〈계〉)도 담겨 있다.

근원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는 글도 포진해 있는데, “모든 위대한 예술은 결국 완성된 인격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예술에 대한 소감〉)는 말이

나 “진정한 미술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결한 인격과 순결한 감정과 위대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미술〉)는 글은 근원의 전통지향적 예술사상을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 직관적 통찰이 빛나는 미술사의 고전

조선미술의 연원과 성격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조선미술사대요》에는 미술사가로서 근원의 탁견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삼국 이전의 미술부터 일제식민시대의 미술까지 건축·조각·서화·공예의 순서로 서술했다. 근원은 조선미술의 특색을 “구수하고, 시원스럽고, 어리석고, 아담한 구석이 있는”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자리매김한다.

근원의 ‘사안(史眼)’은 시대별, 국가별 미술의 특색을 직관적으로 통찰한 데서 빛난다. ‘북방적인 웅혼하고 씩씩하고 규모가 크나 거친’ 고구려 미술, ‘웅혼하기보다 장엄하고, 씩씩하기보다 건강하며, 거칠기보다 부드러운’ 신라미술, ‘세련되고 정교하고 아운(雅潤)한 숨씨’의 백제미술 등으로 명쾌하게 알맹이를 드러내는 것이 그 예다.

또한 근원은 고려미술에서 ‘경쾌하면서도 도타운 맛, 화려하면서도 청초한 맛’을 분별해내는 한편 ‘가냘픈 곡선, 불안정한 형태’에서 ‘비극의 미’를 발견한다. 조선시대 미술에서는 ‘건실한 평민의 미, 순진하고 어수룩한 소박의 미’를 가려낸다. 일제식민기를 ‘암흑시대’로 규정한 근원은 찬란하던 문화와 미술의 전통이 짓밟히고 만 현실을 개탄하며 글을 맺는다.

《근원수필》에서 개화한 근원의 맛깔스런 문체의 묘미는 《대요》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석굴암을 묘사한 다음의 글은 일세를 풍미한 문장가였던 근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살결이, 만지면 따뜻한 것 같고 혈관이 뛰는 것 같고 그 속에 장대한 근골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석불은 조각이란 이름을 붙였으되 완전한 한 인격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 같다.”

《근원 김용준 전집》은 앞으로 제3권 《조선시대 회화와 화가들》, 제4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제5권 《근원의 미술산문》(가제)으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